금남로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

채희종
논설실장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들 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한다.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만남이지만 유독 우리를 당혹케 할 때가 있는데, 바로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일 때이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때는 처음엔 당혹스럽지만 이내 감동에 빠지게 된다.

전쟁 같은 폭염이 시작된 올 여름의 시작이 바로 그러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7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다. 욕실 모서리의 선반 세 개 가운데 맨 아래 것이 부서졌으니 고쳐달라는 주문이었다. 부모님 모두 고령인 탓에 아프거나 다쳤다는 내용이 아닌 민원용 전화에 안도했던 터라, 일단 남은 두 개 선반이 있으니 그걸 쓰고 계시면 나중에 고쳐드리겠노라고 건성으로 답했다. 실은 이즈음 한달 일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시 거주 공간이 필요하던 차에 마침 지인으로부터 빈 아파트를 구하게 됐다. 지인의 연로한 부모님들이 살던 소형 아파트인데 부친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어머니가 병간호를 맡으면서 수개월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다.

네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마땅한 원룸을 구하기 어렵던 차에 곧바로 살림살이는 이삿짐 센터 창고에 맡기고, 꼭 필요한 식기와 옷 가지만을 챙겨 주인 없는 집에 손님으로 들어 앉았다. 마치 집주인 외출한 듯 사람만 없을 뿐 모든 세간이 그대로 인 아파트의 한달살기가 생경하기는 했지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새 아파트로 갈 날 만을 손꼽았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인데다 주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우면서 벽지 곳곳이 얼룩지고, 이곳저곳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내부뿐만 아니라 세간까지도 집주인처럼 나이를 먹은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새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욕실 바닥이었다. 바닥 소재는 거칠거칠한 화강석 타일이었다. 아마도 자식들이 부모의 낙상을 막기 위해 욕실 바닥을 뜯어 고친 것이리라. 모든 것을 고쳐야 할 아파트에 혼자만 새 것인 욕실 타일은 볼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 때 얼핏 떠오르는 게 있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욕실 선반이 부서진 이유를 물었다. 역시나 어머니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반사적으로 선반을 움켜잡았고, 그 바람에 선반이 뜯겨 나갔다는 것이다. 대신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고 가볍게 주저 앉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대로 말하면 뻔히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듣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숨긴 것이리라. 이 얘기를 들은 손자 녀석들이 곧바로 욕실 선반을 붙였고, 욕실 바닥은 사람을 불러 미끄럼 방지 시공을 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약간은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남의집살이에 살짝 적응이 된 듯 했지만 바뀐 환경 탓인지 평소보다 두 시간 이상 일찍 깨는 습관(?)이 생겼다. 이 참에 산책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아파트를 나서서 근린공원과 동네 둘레길을 뛰기 시작했다. 주말이었던 듯 싶다. 마주 오는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60대 초반의 신사가 곱게 차려 입은 80대 후반 노파의 손을 꼭 쥐고 오는 것이었다. 추측건대 아들이 어머니를 노인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장면이었다. 예쁘게 화장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의 얼굴은 발갛게 빛나고 있었다. 공교롭게 이들 커플 뒤로 60대 딸과 80대 어머니로 보이는 모녀도 서로 손을 꼭 쥐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옷 차림이 모두 운동복인 것을 보면 인근 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가거나 헬스장에 가던 길일 것이다.

마음을 열어야 보인다

이들 두 쌍의 뒤에도 나이 든 모녀가 있었는데 행색이 사뭇 달랐다. 네발 지팡이를 짚는 어머니가 예순은 훌쩍 넘긴 듯 보이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걷고 있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딸이 모시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듯 싶었다.

8,90세 노부모를 둔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다. 항상 자식의 손을 잡고 다녔던 부모들이 이제는 늙어 자식의 손에 이끌리는 모습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리게 다가왔다.

이후로도 이 아파트 주변에서는 비슷한 노인 커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택지 지구가 조성된 지 오랜 된 탓에 젊은 세대는 떠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짐작했다.

어느덧 리모델링이 끝나 한 달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새집(?)으로 돌아온 뒤에 산책을 하다가 또다시 당혹감을 느꼈다. 우리 집 근처에서도 아침이면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 가거나 운동을 하는 늙은 부녀나 모자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곁에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는 감동일 수 밖에 없다.

은펜칼럼

이걸요? 내가요? 왜요?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이걸요? 내가요? 왜요?'는 MZ의 '3요'라고 불린다.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고 있는 요즘 세대, MZ세대의 3종 세트 화법이다.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나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내가 해야 하나요? 라고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것은 아닐 듯하다.

'이걸요?'라는 질문은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신으로 원래의 주어진 일 이상의 추가 업무는 불공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제가요?'는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을 반영하며 '왜요?'는 일의 성과가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제는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과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당사자들이 그 일의 결과가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긍적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때 해결된다고 한다. 요즘 세대는 기존 세대들과 달리 시키면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지금의 의료환경과 조건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무너진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현재 '사실'을 10년 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미래 '추측'으로만 판단해 현재의 의료 환경과 조건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학생 수만 늘려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에 파업이 아닌 휴학과 사직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온전히 그들만의 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힘겹게 준비해 왔던, 그리고 지금도 미래를 준비중인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전공의 사직은 2주 전 현실화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 토론회 그리고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현실을 통제하지 못한 정부 의대정원 확충 정책의 문제점이 다 알려졌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학생과 전공의들 또한 정부의 그 어떤 정책적 대안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복귀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올해 의사국가고시는 의학과 4학년 재학생 3015명의 5.3%인 159명이 응시하였고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도 모집 대상 7645명의 1.4%인 104명만 지원하였다.

전체 의사의 6%에 불과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마비되어 가는 대학병원의 모습이 현재의 의료환경과 조건이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까지 의사들의 불공정한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확인시켰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지금의 대학병원 진료 형태가 OECD 통계와 비슷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뜨거운 여름, 의사 사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학생들과 전공의를 우월감에 사로잡힌 특권층으로, 비정상적인 악마로 만드는 이분법적 범주화는 그만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민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MZ세대, 그 스펙트럼 중 하나인 예비 의료인의 행보를 사회적 상호관용으로 인정했으면 한다.

미래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한다. 속도는 이미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어설프게 속도만 내다 이도 저도 안될 수 있으니 그나마 방향이라도 잘 잡아보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이걸요? 내가요? 왜요? 라고 묻는 우리의 MZ세대 예비 의료인들에게 거짓 없는 설명과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속도도, 방향도 없이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기 고

'지역어'가 주는 아름다움

최홍길
서울 선정고 교사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필자는 1년에 서너 차례 고향에 내려온다. 팔순을 넘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나날이 달라지는 섬의 환경을 살펴보고 싶어서이다. 어머니는 재작년에 흔치 않는 병을 앓다가 화순의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한 결과, 주치의의 정성스런 조언에다 가족들의 간병 덕분에 호전된 상태이다.

40kg도 채 안 되었던 몸무게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최근에 3kg 이상 늘어나서 자녀들 모두 흡족한 마음이었다. 여태까지 가없는 내리사랑만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치사랑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해방둥이인 당신은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산전수전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

어머니는 무학이다. 서당에도, 초등학교에도 가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 즉 토박이말을 자주 쓰신다. 홍수(洪水)는 '큰물'이고, 연기(煙氣)는 '내'이다. 그런데 요즘은 달걀 대신 계란이라고 말한다. 드라마의 영향이겠지만, 한자어가 들어간 단어를 종종 활용하기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어른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어휘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한 개의 어휘를 토대로 새끼를 쳐서 관련성 있게 창조해내는 재주가 있다. 다슬기는 물고동이고 우렁이는 논고동이다. 오이는 물외, 참외는 외이다. 고구마는 감자이고, 감자는 북감자이다. 감은 감이고, 토마토는 늘렁감이다. 몸의 때는 때꼽짜구, 눈꼽은 눈꼽짜구, 이끼는 바위꼽짜구이다.

어머니는 표준말을 쓰는 언중(言衆)에게는 이미 사어(死語)가 됐거나 그럴 위기에 처한 토박이말을 심심찮게 쓰신다. 잡도리, 영금, 뒤발하다라는 어휘들을 평상시 사용하고 있다. 물짜다, 무장무장, 천불나다와 같은 단어도 여기에 속한다.

이번 휴가 때는 얼, 가장귀, 조롱외라는 세 단어를 찾았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건져 올린 토박이말이다. '얼'은 밖에 드러난 흠이라는 뜻이고, '가장귀'는 나뭇가지의 아귀로 '나뭇가지가 갈라져서 가장귀가 생겼다'처럼 쓰인다. 필자는 이런 단어를 메모해 두었다가 시조와 수필 같은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활용한다.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조롱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똘외, 돌참외, 쥐방울참외 등이라 불린다는데 조롱외는 발음하기 좋고 얼마나 산뜻한 느낌을 주는가? 열매는 탁구공보다 약간 작은 편인데 노랗게 익은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앙증맞다. 줄기의 마디마다 열매가 조롱조롱(주렁주렁) 달리기에 '외'라는 단어와 합쳐져 조롱외라는 합성어가 탄생한 것이다.

국어학자들의 노력으로 지역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 전라도 섬 마을 등지에는 아직도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분들이 있기에 찾아낼 어휘는 더 있다. '언박싱'과 '터틀크루'와 같이 무작정 외국어를 도입할 게 아니라, 이런 지역어를 더 찾아서 우리의 삶에 알맞은 언어생활을 한다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토박이말은 일종의 지역어이다.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말은 다양함을 갖게 된다. 부추의 지역어인 솔, 정구지, 세우리 같은 지역어를 접하면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생각도 열리게 된다. 이처럼 토박이말은 표준어가 갖지 못하는 여러 귀한 가치가 숨어 있기에 질적으로 처지는 걸로 여기면 오산이다.

어머니의 건강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멋들어진 토박이말을 작품 속에 더 구사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社 說

인력 미스매칭 '아이돌봄' 양성기관 확대해야

맞벌이 가정 등 바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744원~1만1630원의 비용으로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어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요를 보면 광주의 경우 2021년 2031가구에서 2013년 2519가구로 24% 늘었고 이에 따라 예산도 2021년 133억 원에서 지난해 1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21년 3194가구이던 신청 가구 수가 지난해 3693가구로 늘면서 같은 기간 예산도 207억 원에서 291억 원으로 40% 급증했다. 반면 가정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지난 3년 동안 광주가 120여 명만 늘어 1053명에 불과하고 전남도 1199명으로 4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돌보미를 요청하는 가정이 느는 것은 맞벌이 부모들의 수요 때문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돌보미에게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느는데도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원인은 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부족 탓이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한 곳씩인 교육기관을 내년에 한 곳씩 더 늘려 수요를 감당한다는 계획이다.

낮은 출산율과 인력 유출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나마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돌보미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육성 실업팀 광주·전남 체육 발전의 미래

광주·전남 선수들이 2024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획득한 총 32개의 메달 가운데 8개나 따내는 맹활약으로 지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우리 지역 선수들은 7명에 불과함에도 무려 8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눈부신 성적으로 지역 체육의 저력을 발휘했다. 이 같은 성적의 원인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선수 연계 육성시스템 덕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육계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동메달),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 금),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금·은),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은), 유도 이혜경(광주교통공사, 동), 사격 조영재(상무, 동) 등이 메달을 수확했다. 이들 중 4명의 선수가 현재 지자체 팀 소속인 까닭에 화순군청을 비롯한 지역 지자체팀에 대한 전국 체육계의 관심도 뜨겁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의 실업팀 수가 하위권인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미래 지역 체육 육성방향의 해법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시도별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4개 종목에 15개팀, 전남은 21개 종목에 42개팀으로 17개 시·군에서 각각 16위와 10위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 광주·전남 선수들의 쾌거는 지역 지자체들이 먼저 집중 육성 종목을 선정, 선수를 초·중·고~실업팀으로 연계해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이다. 특히 화순군의 복싱과 배드민턴은 잘 짜여진 연계 육성에 집중 지원까지 더해져 알찬 성과를 거뒀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가 대항 스포츠는 화합의 장이지만 각 나라의 국력을 다투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화순군, 순천시 등과 같이 조직적인 선수 연계육성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체육의 명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無等鼓

옹고집

고집쟁이를 일컫는 말 중에 최고는 '옹고집(翁固執)'이다. 늙은이 옹(翁)과 고집(固執)의 조합으로 흔히 남자 노인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사용한다. 고집이 센 사람을 옹고집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 어원이 된 '옹고집전'에서 찾을 수 있다. 옹고집은 조선 영·정조 시기 민간에 등장한 국문소설의 주인공인데, 본래는 판소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심술 많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옹고집이 수도승의 도술에 걸려 고초를 겪다가 참된 인간으로 개과천선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성(姓)으로 보이는 옹(翁)자는 공(公) 밑에 깃 우(羽)자가 붙은 형태인데, '羽'의 의미에 대해서는 늙은이의 기다란 수염을 뜻한다는 설과 추장이 쓴 모자에 달린 깃털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요즘의 옹은 예전의 쓰임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의 성명·호(號) 뒤에 써 남자 노인을 높게 부르는 데 사용된다. 의미가 확장된 측면이 있는데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용되고 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장자는 "고집은 어리석지 않다고 우기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불교 경전 '팔만대장경'에는 고집과 관련 "치우친 고집은 영원한 병"이라고 했다. 이 글귀들의 핵심은 순리를 넘는 고집의 원인이 '억지와 소통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억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것이고, '소통 부재'는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킴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성질(성향)을 뜻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곧바로 재투표를 강행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상황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고집스럽게 보인다는 점은 문제 아니겠는가.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